

## 네스터 10호: 자존심 때문에 사라진 로봇 (by 아이작 아시모프)

\* \* \*

캘너 장군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군복 차림으로 대머리를 번뜩이며 거북한 말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좀 당혹스러운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두 분 박사님. 우선 전후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급하게 요청드렸는데도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봇 한 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작업이 모두 중단되었고, 로봇을 찾을 때까지 계속 중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찾아봤지만 아무 성과도 없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설명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절박하게 덧붙였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작년 과학 연구 예산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이 여기에 배정되었을 정도니까요.”

보거트 박사가 동의했다.

“그럼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U.S.로보틱스’도 로봇 대여비용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요.”

수잔 캘빈이 무뚝뚝하고 간간한 말투로 끼어들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로봇 한 대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못 찾은 이유는요?”

장군은 붉어진 얼굴을 수잔 쪽으로 돌리더니 재빨리 입술에 침을 발랐다.

“어떻게 보면 이미 찾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로봇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우리는 비상사태를 발동하고 하이퍼 본부의 모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하루 전날 화물 수송선이 이곳에 착륙해서 우리가 사용할 로봇 두 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송선에는 다른 곳으로 수송할 동일한 유형의 로봇 예순두 대가 남았습니다. 확실한 수치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라진 로봇을 찾아 사방을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풀잎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찾아다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수송선에 남아 있는 로봇의 수를 세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세 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순세 번째가 사라진 로봇이겠군요?”

캘빈 박사의 눈동자가 질어졌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로봇이 예순세 번째 로봇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시계 종이 열한 번 울리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주 독특한 일이군요.”

로봇심리학자가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고는 동료들을 곱지 않게 바라보았다.

“보거트 박사님, 이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곳 하이퍼 본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거죠?”

보거트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슬며시 웃었다.

“그게 아주 미묘한 문제요, 캘빈 박사.”

그러자 수잔 캘빈이 급히 말했다.

“똑같은 로봇 예순세 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를 찾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한 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죠?”

보거트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그럼 설명해 주겠소, 수잔. 공교롭게도 하이퍼 본부에서 로봇공학 제1원칙 전체를 두뇌에 새겨 넣지 않은 로봇 몇 대를 사용하게 되었소.”

수잔 캘빈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제1원칙을 새겨 넣지 않았다고요? 그런 로봇을 몇 대나 만들었는데요?”

“서너 대요. 정부 명령이라 비밀을 지켜야 했소. 직접 관련된 중역 몇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르오. 당신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수잔. 어쩔 수 없었소.”

장군이 말했다.

“약간 설명을 덧붙이고 싶군요. 나는 캘빈 박사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로봇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이 늘 일어난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캘빈 박사. 그동안 정부는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에게 모든 로봇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제1원칙을 두뇌에 내장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어 논리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성질이 다른 로봇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NS-2 네스터 모델 가운데 몇 대만 제1원칙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상황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NS-2 모델 전체에 일련 번호도 매기지 않고 제작해 수정한 다음 다른 일반 로봇과 함께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수정된 로봇 모두에게,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수정된 로봇이란 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두뇌에 새겨 넣었지요.”

장군은 당혹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잔 캘빈이 짹짹말게 말했다.

“로봇 하나 하나에게 다 물어보셨겠죠? 당연히 장군님은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순세 대 모두 이곳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한 대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장군님이 찾는 로봇한테 어떤 마모의 흔적 같은 건 없나요? 다른 로봇은 이제 막 공장에서 나왔다니까.”

“문제의 로봇은 지난달에 도착한 겁니다. 이번에 두 대가 더 도착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마모의 흔적이 없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흔드는 장군의 얼굴에 또다시 고통이 어렸다.

“수잔 캘빈 박사, 우린 수송선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제1원칙을 수정한 로봇이 존재한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로봇심리학자는 냉혹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예순세 대 다 파괴하세요. 사건을 끝내자고요.”

보거트는 입꼬리에 힘을 주었다.

“한 대에 3만 달러나 되는 로봇을 모두 파괴해요? ‘U. S. 로보틱스’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수잔, 그 전에 우선 필요한 노력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소.”

수잔 캘빈이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어요. 하이퍼 본부는 어떤 이득을 보려고 로봇을 수정한 건가요? 수정한 로봇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장군님?”

캘너 장군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이마를 톡톡 두드렸다.

“예전 로봇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방사선이 아주 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우리가 작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사고가 난 건 두 번밖에 안 되고, 그것도 모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로봇한테는 그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공학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이지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수잔 캘빈 박사.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명이 적당한 감마선에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걸 감수하면서 작업하고 있으면 근처에 있던 로봇이 그 직원을 구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는데도 말이죠. 감마선이 아주 약하면 로봇이 성공하겠지요. 그러면 로봇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마선이 강하면 직원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로봇이 쓰러지고 맙니다. 감마선 때문에 양전자 두뇌가 파괴되니까요. 대체하기도 힘든 값비싼 로봇 한 대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로봇들을 설득하려고 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감마선에 노출되면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는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하더군요. 깜빡 잊고 30분을 넘길 수도 있고 자신들은 요행을 바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로봇들 목숨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건 제3원칙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1원칙이 우선이지요. 그들에게 명령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마선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명령복종은 제2원칙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1원칙이 우선이지요. 캘빈 박사님, 우리는 로봇 없이 작업을 하거나 제1원칙에 일정한 손질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택을 한 겁니다.”

캘빈 박사가 말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제1원칙을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니.”

캘너 장군이 설명했다.

“제거한 게 아닙니다. 제1원칙의 적극적인 측면, 즉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입력해서 양전자 두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인간이 감마선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을 의무만 없앤 거죠. 내가 설명한 게 맞습니까, 보거트 박사님?”

수학자가 동의했다.

“정확합니다.”

“그게 일반 NS-2 모델과 그 로봇의 유일한 차이점인가요, 보거트 박사님? 유일한 차이점?”

“그렇소. 유일한 차이점이지요, 수잔.”

\* \* \*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실험을 하겠습니다.”

수잔 캘빈은 의자에 앉아 두 눈을 열심히 움직이며 조용히 살폈다. 머리 위에서 무거운 물

체가 떨어져 밑으로 돌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전자 광선에 밀리며 옆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로봇 한 대가 급히 일어나 두 걸음을 떼었다. 그러다 멈췄다. 캘빈 박사가 일어나 손가락으로 그 로봇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스터 10호, 이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지적당한 로봇이 마지못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심리학자는 그 로봇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명령했다.

“다른 로봇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데려가세요. 데리고 나가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어서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무거운 발걸음이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도 들렸다. 수잔 캘빈은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네스터 10호로 여겨지는 로봇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러고는 수잔 캘빈의 손짓에 따라 두 걸음 더 다가왔다. 열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로봇이 쉼 소리로 말했다.

“사라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한 걸음.

“저는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저를 못 찾았습니다……. 주인님은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주인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힘도 강하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용솟음치듯이 나왔다. 또 한 걸음.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되었다고……. 주인님은 생각할 겁니다……. 창피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님은……. 저보다 약하고…… 느린데…….”

또 한 걸음. 동시에 금속 팔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 수잔 캘빈의 어깨를 잡았다. 수잔 캘빈은 자신을 내리누르는 육중한 힘을 느꼈다. 날카로운 비명이 흘러나왔다.

네스터 10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무도 저를 찾아선 안 됩니다. 어떤 주인님도…….”

차가운 금속이 어깨를 계속 눌렀다. 수잔 캘빈은 육중한 무게에 눌리며 밑으로 주저앉았다.

그다음 순간 이상한 금속 소리가 나면서 수잔 캘빈은 쓰러지는 느낌도 없이 바닥에 픽 쓰러졌다. 반짝이는 팔 하나가 수잔 캘빈을 무겁게 눌렀다. 팔은 움직이지 않았다. 네스터 10호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옆에 큰대자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여러 얼굴이 나타나 허리를 숙이고 내려다보았다.

제럴드 블랙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수잔 캘빈 박사님?”

수잔 캘빈이 힘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사람들은 금속 팔을 그녀에게서 들어낸 후 수잔 캘빈을 천천히 일으켰다.

“어떻게 된 거죠?”

수잔 캘빈이 묻자 블랙이 대답했다.

“실내 전체에 5초 동안 감마선을 쏘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네스터 10호가 박사님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감마선을 쏘았습니다. 로봇은 그 즉시 쓰러졌습니다. 사람한테 해로운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수잔 캘빈은 눈을 감고 블랙의 어깨에 잠시 머리를 기댔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스터 10호가 처음에는 날 공격하려 했지만, 조금 남아 있던 제1원칙이 막아줬어요.”

수잔 캘빈과 피터 보거트가 캘너 장군을 처음 만난 게 벌써 2주 전이었다. 하이퍼 본부는 이미 모든 작업을 재개했다. 그리고 수송선은 정상 NS-2 예순두 대를 싣고 2주 동안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만든 설명과 함께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 정부의 특별 순찰선은 로봇 전문가 두 명을 싣고 지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캘너 장군은 번쩍이는 정복 차림이었다. 장군이 악수를 할 때 흰 장갑이 빛났다.

수잔 캘빈이 말했다.

“수정된 다른 네스터들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그럴 겁니다. 정상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필요하면 로봇 없이 작업할 생각입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수잔 캘빈이 씩 웃었다.

“아, 그거요?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장군님도 아시다시피 네스터 10호는 점점 더 심해지는 우월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스터 10호는 자신을 비롯한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아주 중요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 사실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로봇 각자에게 감마선에 닿으면 죽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고, 그들과 저 사이에 감마선이 있을 거라고 일일이 추가 경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실험에서 네스터 10호가 말했어요. 그들 모두 자신이 도달하기 전에 죽을 게 분명할 때는 인간을 구하려고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왜 네스터 10호가 벌떡 일어난 거죠?”

“그건 저와 장군님의 젊은 직원 블랙씨 사이에 약간의 별도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로봇 사이에 흐른 건 감마선이 아니라 적외선이었어요. 전혀 해가 없는 평범한 적외선. 네스터 10호는 그게 적외선이라서 아무 해가 없다는 걸 알고 튀어나온 거예요. 제1원칙에서 강제하는 내용에 의해 다른 로봇들도 그럴 거라고 예상한 거죠. 정상적인 NS-2는 방사선을 감지할 수는 있어도 방사선 종류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건 바로 다음이었어요. 하이퍼 본부에서 인간에게 훈련받은 덕분에 파장의 길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마 무척 창피했겠지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정상 로봇은 그곳을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지만, 네스터 10호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스터 10호는 다른 로봇들이 인간보다 무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떠올리기 싫었거나. 결국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잡히고 만 거죠. 그럼 이만 가 볼게요, 장군님.”